

<基調演說文>

## 不況克服을 위하여

鄭 守 永

現下 우리나라 經濟는 國際收支의 惡化, 物價騰貴 등에서 緊縮經濟政策이 不可避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國際通貨不安, 對美纖維輸出協定, 越南特需의 減少 등 外的惡條件도 加重하여 甚한 不況속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年率 10% 이상의 成長을 하면서도 企業倒産, 操業短縮등이 續出되고, 심지어는 危機意識마저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不況의 現象面은,

첫째로 企業業績의 惡化를 들 수 있습니다. 즉 70年度 우리나라 企業의 總資本利益率은 前年에 비해 下廻되고 특히 鑛業은 7.24에서 1.61, 建設業은 9.64에서 4.15로 極히 惡化되었으며 71年の 建設投資는 7%以上이나 減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運轉資金의 他人資本에의 依存度가 深化되고 自己資本比率을 惡化시키고 短期負債가 加重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收益性的低下와 아울러 操業短縮, 休業 내지 廢業이 急増하고, 더욱이 製造業에 있어서는 需要의 數倍나 되는 生産設備가 運休狀態에 빠져 있는 곳도 許多한 實情에 놓여 있습니다. 71年度 中小企業調査에 의하면 全企業의 約 4割程度가 操業短縮을 하고 있고, 休業 또는 1年內에 廢業하고 있는 것이 1割以上이나 된다고 합니다. 특히 合成纖維, 타올業界등은 거의 全企業이 操業短縮, 休·廢業이 되고 있으며 한편 大企業중에는 借款등의 形式으로 外資를 導入하고 있는 企業이 매우 많고, 이 中에는 이른바 不實企業이 續出, 昨年末現在 58個社가 未整理된채 銀行管理下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纖維, 肥料, 鐵, 石油등은 外資導入에 의하여 일단 形態를 갖추었기는 하지만 國內市場의 狹少에다 海外市場의 競爭力強化가 困難하고, 그 위에 不條理한 經營등으로 償還能力을 創出할만한 利潤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實情입니다.

특히 運轉資金이 응색하여 月利 2.5%~4%內외의 私金融에 依存하여 企業財務는 惡化되고 있는 事例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편 71年 6月 圓貨切下에 의한 外資償還負擔의 增加, 不實企業의 增加에 따르는 銀行에 의한 借款元利金償還의 立替擔이 急増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60年代에 積極的으로 導入한 外資의 償還期에 접이든 우리나라 經濟는 그 償還이 今後 年年 增加一路에 있으며 72年度의 民間企業의 外資償還負擔은 約 1億8千700萬弗에 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狀況을 背景으로 市民生活의 窮乏, 新規採用의 中

止, 人員整理를 하는 企業이 더욱 늘어나고 失業도 增加하였습니다. 公式發表에서는 失業率이 4.8%로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 農閑期の 半失業農村人口를 加하면 10% 이상이나 된다고 합니다. 또한 賃金引上率은 低下되고 71年 秋期賣買支給은 大部分의 企業이 例年の 半分以下였고, 支給 不能에 봉착한 企業도 續出되고 있습니다. 한편 消費者物價의 高騰도 加하여 家計를 壓迫하였고 70年度의 民間消費支出에서 보면 保健費, 娛樂費가 占하는 比率이 前年에 比해 低下되고 있는 한편 食料品支出은 增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年度의 家計貯蓄이 842億이고 보니 前年에 比하면 300億원이나 減少되고 있음은 家計의 困難함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둘째는 外部的 惡條件을 들 수 있습니다. 즉 越南特需의 減少, 派遣軍人, 勞務者등의 本國送金減少등 越南戰爭에의 依存도가 높은 韓國經濟에 있어서는 큰 打擊이었습니다. 그리고 駐韓美軍의 一部 撤退에 따르는 國連軍收入의 減少, 反對로 國防優先에 따르는 防衛豫算의 膨脹등은 經濟開發上에 큰 障害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國際通貨不安, 美國의 援助減少 및 對美纖維輸出協定등이 加重하여 특히 纖維產業이 占하는 比重이 큰만큼(製造業全體의 35%) 纖維協定の 영향은 앞으로 클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外部的인 惡條件만이 오늘날의 不況을 招來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不況의 根源은 韓國經濟의 構造 그 自體 내지는 韓國의 奇跡이라고 하는 60年代의 高度成長이 바로 그것을 말해 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60年代의 成長을 主導한 것은 積極的인 外資導入에 의한 高度의 設備投資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現在는 導入된 借款의 償還期에 들어가고, 相對的으로는 設備過剩狀態가 되어 設備投資의 意欲도 점차 그림자를 감추어버린 業種들도 있습니다. 또한 60年代의 成長이 빠른 反動으로서 國際收支의 惡化를 가져와 도처에 不況現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韓國經濟의 回復을 곤란하게 하고 있는 要因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세째로는 出血輸出의 「딜레마」인 것입니다. 즉 外資導入에 있어 公共借款은 電力, 運輸, 農業 및 中小企業의 育成, 商業借款은 纖維, 肥料, 化學, 유리, 精油, 金屬등이고, 直接投資는 製造業의 各分野에 主로 投入되고 있습니다.

外資導入의 經濟效果는 파악하기 매우 어려우나 71年2月 日本의 對韓資本協力環境調査團의 報告書에 의하면 外資導入企業이 62年~70年 6月까지 國際收支에 曄效果는 ① 輸出 5億 822萬弗, ② 輸入代替 12億 5,284萬弗, ③ 原料輸入 7億 567萬弗로 되어 있습니다. 確實히 工業化는 促進되고 産業構造는 高度化되었습니다. 60년에 36.9%를 占한 第1次産業은 70년에는 28.4%로 低下되고, 反對로 第2次 産業은 15.7%에서 21.7%로 上昇하였고, 輸出品의 品目構成에서도 工業製品의 比重은 60年の 18%에서 70년에는 86%로 크게 伸長하고 있습니다.

豐富한 勞動力과 低賃金を 바탕으로 하여 先進國에서는 斜陽化해가는 纖維, 合板, 靴, 假髮등의 輕工業品分野에서 그 輸出은 急增되었던 것입니다. 62年~70年

의 輸出伸長은 年平均 40%의 高率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資源不足에다 國産化도 낮기 때문에 機械施設이나 原材料의 輸入도 그것에 比例하여 急増, 貿易收支赤字의 絶對額은 결국 增大路에 있습니다. 이것은 輸出에 의한 外貨의 稼得率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元貨切下, 日本의 出切上으로 輸入原資材「코스트」가 引上되어 出血輸出이 되고, 그러나 出血輸出마저 계속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貿易赤字가 借款導入에 의하여 매워져 있을 때는 아직도 좋았으나 1968년에 5,200萬弗에 不過했던 借款元利金の 償還이 71년에는 2億3千萬弗을 초과하였고 1976년에는 4億5千萬弗에 달하는 것입니다.

올해 出發한 第3次 5個年計劃에서는 約 38億弗의 外資를 計上하고 있으나 그 半分은 償還에 充當해야 할 形편입니다.

이것을 企業베이스에서 보면 償還의 負擔의 重荷에서 資金難, 經營難에 빠지고 一部에서는 銀行에 의한 償還의 立替拂을 招來하여 不實企業에 轉落하는 運命의 길을 걷는 企業도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한편 輸出實績이 높은 企業일수록 經營難에 빠지고 있는 事實은 이때까지의 收益性을 無視한 輸出優先主義를 批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政府는 民間企業이 導入한 短期商業借款의 金利引下, 償還期間延長을 日本 및 歐美諸國과 交渉할 計劃을 세우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그것만으로는 到底히 따라갈 수 없는 實情입니다.

더욱이 政府는 69年末 國際收支의 惡化, 「인플레이」의 高進, 元貨의 急落등에 의하여 緊縮政策으로 轉換, 金融, 財政上의 緊縮과 아울러 短期借款의 導入規制를 시작하였으나 이것은 企業으로 하여금 심한 運轉資金難에 빠트리게 한 것입니다. 今年 上半期中은 不況色이 더욱 強할 것이 豫想되며 그것에도 不拘하고 緊急政策을 本格的으로 解除할 수 없다는 데에 우리나라 經濟의 苦澗이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私金融의 問題입니다. 企業成長을 위한 旺盛한 投資붐은 構造的인 貯蓄과 投資붐을 發生케 하고 그 一部는 外資로 充當하였으나 資金의 恒常的인 不足狀態를 招來, 企業은 高利나마 손쉽게 利用할 수 있는 私金融에 依存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政府는 65年 預金量을 增大하는 同時에 私金融資金을 吸收할 目的으로 高金利政策을 採用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71年 私金融의 流通規模는 約 2,500億圓으로 市銀程度의 規模에 遠할 程度로 늘어난 것입니다. 私金融의 存在는 健全한 企業經營을 害칠 뿐만 아니라 政府의 金融政策의 實施에 있어 큰 障害가 되어 있습니다. 政府는 企業의 金利負擔을 輕減하기 위해 66年以後 다섯 차례에 걸쳐 金利引下를 하는 한편 私金融의 새로운 解消策을 檢討해 왔습니다. 그러나 資金의 絶對量이 不足한 韓國에서 私債의 蔓延을 防止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 동시에 또한 큰 覺悟를 要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놀랄만한 高利資金을 利用하면서도 僅僅히 延命할 수 있었던 것도 每年 10%를 넘는 「인플레이」의 高進이 한편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反對로 「인플레」가 高金利를 낮게 하였고 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適正水準의 金利를 유지하고 金融의 正常化를 꾀하기 위해서는 「인플레」退治를 並行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企業經營者가 個人的 資金을 私債로 會社에 高利로 融通하고, 自己는 致富하면서 事業을 亡하게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상은 우리나라 企業의 不況의 現象面을 단편적이거나 살피 보았으나 不況을 克服하고 安定化를 摸索하는 우리의 態度는 果然 어떠한 方向으로 指向해야 할 것인지?

첫째 無原則한 輸入政策의 止揚일 것입니다. 문제는 輸出市場의 多角化에 의한 輸出增大와 並行하여 輸入政策의 合理化를 期해야 할 것입니다. 60年代의 輸入의 伸長率 年平均 21.4%에 대하여 第3次經濟開發計劃期間中에는 約 12.5%로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면 國內資源의 治用과 아울러 國產化率과 輸出稼得率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國際收支의 安定은 主로 輸入面에 달려 있다고 보며 매우 어려운 課題이기는하나 收益性을 無視한 輸出增大에만 依存할 것이 아니라 無原則한 輸入政策의 止揚으로 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自立經濟를 志向하기 위한 外資依存率을 引下하여야 할 것입니다.

政府는 第3次計劃에서 自立經濟의 目標을 達成, 南北統一을 위한 經濟의 基盤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商業借款의 경우 이를 量의으로 規制하려는 것은 특히 短期, 高利의 商業借款은 그 償還負擔이 導入企業의 經營을 壓迫하고 나아가서는 國際收支를 惡化하는 現狀을 反映하는 것이기에 外資依存率을 引下하는 한편 특히 特定國의 影響力을 減小할 수 있도록 排除하기 위한 導入先의 多角化를 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셋째로는 根本的인 經濟構造의 改善이 時急합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같이 不況의 根源은 韓國經濟의 構造의 缺陷과 體質의 脆弱性에 있다고 볼 수 있고, 韓國의 奇跡이라고 하는 60年代의 高度成長이 바로 그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60年代의 成長이 빠른 反動으로서 國際收支의 惡化를 가져왔고 到處에 不況現象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構造의 缺陷을 改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플레」의 追放과 安定基盤의 造成이 先行되어야 할 基本要諦일 것입니다.

넷째로는 企業風土의 淨化 및 經營哲學의 確立問題입니다. 즉 經營者의 올바른 道德性과 價値意識을 바탕으로 한 經營者의 社會的, 公共的 責任意識을 통하여 企業風土의 淨化가 이루어져야 하며 不條理한 經營에는 經營學의 理論과 知識自體를 外面當하기 쉬운 것이기에 우리나라에서도 經營學의 理論과 知識이 잘 適用될 수 있는 企業風土의 淨化 및 經營哲學의 確立이 앞서야 할 것을 특히 強調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不況克服을 위해서는 먼저 經營者의 精神의 基礎가 바로 잡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는 自主性和 主體意識을 堅持하여야 할 것입니다. 韓國經濟가 外國資本에 크게 依存하고 있는 狀況下에서 우리 個個人은 民族資本의 形成이라는 觀點에

서 올바른 價値觀을 가지고 主體意識과 自主性을 堅持하여 買辦資本에 눈이 어두어 外國企業의 經營戰略에 휘말려 들어가는 愚를 犯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外資의 非合理的 管理에서 오는 不條理 때문에 國際收支의 惡化를 가져오고 도처에 不況現象이 나타나 이것이 經濟回復을 困難케 하는 要因의 하나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섯째는 生産性向上을 통한 不況의 克服입니다. 즉 不況을 克服하기 위한 또 하나의 方案은 生産性向上을 實現하는데 있습니다. 生産性向上을 實現하기 위해서는 生産要素인 勞動力이나 原材料, 機械, 設備등과 이들을 總合하는 經營管理에 대하여 그 合理化를 實現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合理化 意識은 過去와 現在는 반드시 그 內容이 同一하다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過去의 合理化의 思考가 單只 賃金切下와 人員整理를 그 主要課題처럼 生覺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現在의 合理化의 方向은 좀더 人間關係的 反省이 加味한 새로운 合理化가 展開되어야 할 줄 압니다. 賃金切下 대신으로 生産性向上에 의한 高賃金の 實現과 人員整理 代身으로 生産性向上으로 雇傭機會의 增大와 勞動力의 活用을 그 主要課題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經營合理化는 窮局的으로 生産性向上에 目標을 두고 있고, 이 生産性向上에는 健全한 勞使協議와 從業員의 勞動環境을 원만하게 造成해 주는 것이 重要な 役割일 것입니다. 그리고 生産性意識을 더욱 強化하여 原價節減에 대한 研究와 나아가서는 勞務管理 내지 生産技術의 合理化, 마아케팅組織의 合理化, 企業合併, 系列化등을 통하여 合理化를 促進할 수 있는 主要課題 하나 하나를 着實하게 解決함으로써 不況克服을 生産性意識을 통하여 寄與할 수 있는 方向을 摸索하고 또한 實踐해 나가는 것이 또 하나의 要諦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祝 發 刊

高麗大學校 總長

金 相 洵

高麗大學校 經營大學院 院長

鄭 守 永

高麗大學校 商科大學 學長

成 昌 煥